효문화 지원정책 전국 '최고'

익산시, 효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등 효 실천 분위기 조성 박차

익산시는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효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먼저, 시는 지역의 효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료보감'을 출시했다.

자료보감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지역의 효문화 유·무형 자산을 총망라해 효자·효부 열부(인물) 208명, 유형문화자료 164개소, 무형효문화자료 21건, 왕조실록, 문집 23건 등 총 416건을 수록됐다.

시는 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

효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을 '효행마을'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의 효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효행 스토리를 창작 동화와 그림책으로 제작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절·인성 교육, 효행 스테이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아동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효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이야기 할머니'를 양성하고 있다.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초청하는 '장수 어르신 경로잔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은 "익산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유·무형의 효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전통적인 효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60대이상 고령층 코로나19 4차 접종 시행

군산시, 18일부터 사전예약… 25일부터 예약접종 실시

60대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당일접종으로 4차 접종이 14일부터 시작된다.

군산시는 고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으로 4차 접종을 자율적으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령층 4차 접종은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은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3회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있어도 희망시 접종 가능하다.

접종간격은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다.

접종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으로 사전 예약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접종 시작은 14일부터 가능하며 의료기관 문의 후 당일접종으로 가능하다. 또 오는 18일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오는 25일부터 예약접종이 실시된다.

특히, 현재 접종 방침은 코로나19에 감염이력이 있더라도 예방접종은 2차 접종까지 권고하고, 3~4차 접종은 희망자에 접종가능한 상태이지만 확진 시점에 따라 상세 안내를 통해 접종 희망시 접종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군산 백신접종 현황은 60대 이상 91%(80세 이상 1만2,519명, 70~79세 2만2,265명, 60~69세 3만7,001명)가 3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차 접종은 최근 돌파감염자의 재감염 발생으로 인해 추가접종을 권고하게 된 것"이라며 "기 확진자의 경우도 확진 시점에 따라 상세 안내 및 접종 희망시 접종 가능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황철호 권한대행, 승화원 현장 방문… 운영 현황 점검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며 확대 운영중인 승화원을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

군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한시적으로 확대·운영 중인 화장시설 정책을 4월에도 이어 나가고 있다.

시 승화원(화장장)은 지난달 17일부터 하루 화장 건수를 화장로 4기, 3회(12건) 운영하던 것을 비상시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해 4회(20건)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화장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전면 금지하고 일반위주로 전환해 운영 중인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은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업무 증가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유족들이 마지막 고인을 보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6월까지 격주 토요일에 결혼이민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토닥토닥-쿡 요리교실을 개최한다.

토닥토닥-쿡 '요리교실'

익산글로벌문화관, 결혼이민자 한국생활 정착기 · 요리교실 개최

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6월까지 격주 토요일에 결혼이민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토닥토닥-쿡 요리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밑반찬 및 간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도 배우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정착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간담회를 통해 희망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욕구조사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높은 참여율이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총 5회기로 떡갈비, 파인애플샐러드, 쵸코칩쿠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진행되며 회기당 재료비는 1만 원이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전북 최초의 다문화 전시·체험시설로 1층 다문화식당(태국, 중국), 카페 2층 전시관람·의상체험실, 3층 언어교육실·요리체험실, 자조모임실 4층 하늘정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 관람, 세계문화체험, 원데이 클래스, 미니콘서트 등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참여 가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타 지자체 교육기관에서도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전시·체험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와 유선전화(859-5385~5386, 5496)로 예약할 수 있다.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은 "체험을 통해 한국의 식생활 등도 익히고 자녀가 좋아하는 요리도 배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며 "앞으로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민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방세 전반 안내 리플릿 제작 · 배포

익산시는 지방세 전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수록한 '2022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리플릿은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과 함께 지방세를 세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복잡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작됐다.

총 8면에 걸쳐 세목별 납세의무자, 세율,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지방세 일람표를 수록하여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원 내용을 수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내용도 실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더불어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 및 영세업자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마을 세무사 상담 운영 제도에 관한 내용도 볼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익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및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 소급 공제 기간이 한시적으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어린이공연장 패밀리 매직쇼 무료 공연

군산시는 어린이공연장에서 마술쇼인 '패밀리 매직쇼'를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16일과 23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매직쇼 공연을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회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연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실시해 선착순 마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신비로운 마술쇼를 통한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연에 관련된 문의는 군산 어린이공연장(063-454-5743)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